

하느님 말씀 식탁에 초대합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세례식 열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세례식이 열렸다. 사진: 윤낙훈 니콜라스

【펜실베이니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주임 정대웅 요한 보스코 신부)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교중 미사 중 전교주일을 맞아 예비신자 13명에 대한 세례식을 가졌다. 전세계를 휩쓸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필라델피아교구 지침으로 성당이 문을 닫았고 부활절에 예정된 세례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잠정중단되었

다.

김찬미 가비노 보좌신부의 지도로 지난 9월부터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계속된 예비자 교리반은 2년 만에 마무리 과정을 거쳐 세례성사를 받는 기쁨을 가족친지들과 함께 누렸다. 세례식에 앞서 정대웅 주임신부는 개별 면담을 통해 영세받을 마음의 준비와 세례 후 신자로서 지켜야 할 교회 예절과 의무에 관해서 설명했다.

정 신부는 강론에서 “복음화는 세상을 변화시켜 새롭게 질서를 이루는 것이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회와 자신의 쇄신이다. 성사 클럽 활동을 통해 예비신자 재교육, 성서공부, 피정,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그분의 자비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복지, 노동자와 빈민사목, 복지사목을 통해 소외된 사회 계층을 끌어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빛은 세상 모든 분야에 스며들며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례식에는 혼인을 통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네 쌍의 부부의 혼인갱신식도 함께 열렸다.

김명관 요셉, 한연실 마리아 부부는 “오늘 첫영성체를 받아 모신 설렘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 부부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입교 권유를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앞으로 하느님의 말씀 식탁에 앉아 풍성한 밥상을 천천히 준비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양경숙 명예기자